

# 산업보건협회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 송 지 태

안전보건분야 전문가들 대부분이 앞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문제, 다시 말해서 산업재해예방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직업병 문제와 근골격계질환 문제들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나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의 활동과 오늘의 현실들을 조명해 봄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는 산업보건협회에서 시작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역사는 탄광에 종사하던 광부들의 진폐증 문제를 주목하고 사회에 고발하기 시작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당시의 회장 최영태 박사와 그 당시 가톨릭대학 산업의학연구소 초대 소장이셨던 조규상 박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도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탄생하고 지금과 같은 전국적 조직은 아니지만 전국 지부 결성이 시작되었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도 이때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발표된 근로자 건강관련 논문으로 벤젠중독으로 인한 재생 불량성 빈혈증, 도금공장에서서 자극성 가스에 의한

폐수중, 먼 방직 여공들의 폐환기능, 제련소의 아황산가스 중독으로 인한 피부염과 상기도 점막염증 등의 다양한 연구들도 이 선배들의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현재의 산업보건협회가 그 규모나 활동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자 건강보호는 분명히 산업보건협회가 끌어오고 주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주도하는 중심축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못지 않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전문성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효과적인 근로자 건강보호는 통합적·시스템적 대처로 가능

오늘날의 산업현장은 작업자체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유해 위험요인도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작업외적인 영향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재해발생요인들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인 것입니다. 이미 화재, 폭발 등의 사고에는 발화원이 정전기에 의한 것인지, 기름걸레나 화학제품의 반응에 의한 것인지 또는 특정한 인화원에 의한 발화인지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조사에 참여하여 밝혀내고 공동의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여러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통합적·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가 근로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작업과 관련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대책에 추가하여 공학적 대책까지 강구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협회도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어 산업의학·산업위생·간호·독성학·인간공학 등 다른 전문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므로써 안팎에서 밀려오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재빨리 수용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보건협회 창립초기의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고 이제 시작된 21세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중심축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요자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 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넓혀야

기업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과감한 변신을 계속하고 있고 기술이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계자들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처음 창설할 때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잊지 않고 더욱 발전,  
 승화시켜 나갈 때 산업보건협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감을  
 물론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다함께 신뢰받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세미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장별로 상대국과 교류사업을 갖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보건인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가 이유이기에는 하겠지만 변화의 중심축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전문성 이외에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위생 공학적이고 시스템 공학적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기업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 중 근골격계에 관한 예만 들더라도 근골격계 환자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예방하느냐 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의 고민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간공학적 지식이나 작업공정의 자동화나 반자동화를 위한 지식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보건 가족들이 이 분야에 관한 완벽한 지식을 습득하기

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개념과약이나 이해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초에 산업보건협회 모든 직원들이 천안 상록리조트에 함께 모여 연찬회를 갖는 좋은 사례가 있었듯이 이와 같은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있어서도 전문성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외국의 산업보건 전문단체와의 정기적인 교류나 해외연수를 통하여 이 분야를 더욱 진흥시키는 일도 앞으로 해야 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처음 창설할 때의 선배들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잊지 않고 더욱 발전, 승화시켜 나갈 때 산업보건협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책임지고 주도해 나감을 물론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다함께 신뢰받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협회 가족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애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보건분야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